



##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CEO의 편지  
수 데스몬드-헬만

다음과 같은 질문은 게이츠 재단의 전 직원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가령, 낙후된 지역사회가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면? 만약 전세계 여성들과 소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또 만약 모든 어린이들, 특히 극빈층 어린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게이츠 재단은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천착해 왔습니다. ‘모든 삶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신념은 가난을 퇴치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 업무의 지침입니다.

제넨테크(Genentech)에서 일한 14년을 포함해 저는 제 경력을 쌓는 내내 헬스케어와 혁신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의 동력은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위험에 맞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년 전 게이츠 재단의 최고 경영자(CEO)로 합류했습니다. 영향력을 가질 만큼 충분히 오래 있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신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의 정체성, 업무, 업무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미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저희 업무를 일부 공유하며 재단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한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놀라게 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궤도를 수정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계기로 저희의 파트너, 지지자, 그리고 동료 낙관론자인 여러분과 함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고무적이고 겸허한 도전에 대해 새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기원합니다.

빌과 멜린다 이사장은 저희 재단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중요한 이슈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의 전문성과 열정은 재단 운영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영향력 강화에 집중해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단의 전략을 전세계의 공동 목표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새로 발생하는 문제에 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지카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만연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혹은 감당하길 원치 않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저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의 원칙을 공중보건 분야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모든 업무는 파트너십에 달려 있고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게이츠 재단의 저력은 더 많은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능력입니다.

저희 재단의 고위 경영진은 개발도상국 및 중역국 정부, 국제 개발 협력 기관, 민간 기업, 교육기관, 다른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저희가 하는 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프로그램 실행, 적절한 수단의 활용과 배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의 협력 파트너들이 중요한 이유는 각 지역 현실에 기반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실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든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 담배와의 싸움

저는 재단의 파트너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며 때로는 어떤 조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의사이자 암 연구자로 경력의 상당 부분을 지내온 저는 담배 규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계 십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는 직접 흡연의 경우 전체 흡연자의 절반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소비재입니다. 매년 거의 6백만 명이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며, 그 중 60만명은 간접 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입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담배유행병(tobacco epidemic)은 2030년까지 매년 8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망시킬 수 있으며 그 중 80퍼센트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게이츠 재단은 30여 개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에서 담배유행병에 맞서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2억 2천 5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담배 규제와 관련한 저희의 노력은 핵심 파트너인 블룸버그 재단의 반(反) 담배산업 펀드 조성 이니셔티브에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게이츠 재단에는 두 사람으로 구성된 담배규제 전담팀이 있습니다. 단 두 명입니다. CEO로서 보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관리하는 이런 유능한 팀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파트너 기관과 지원 국가들이 보유한 지식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의 역할은 국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경청하고 적절한 조합의 파트너들에게 재원을 제공해, 그들이 증거에 기반한 최고의 담배 규제 조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례로 필리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주도형 담배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2013년 필리핀 정부는 담배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담배세를 최대 820퍼센트까지 인상하는 획기적인 ‘죄악세법(Sin Tax Law)’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 필리핀 정부는 이 세법을 통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 9억 8천만 달러의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또 담배 가격 인상 이후 필리핀의 전체 흡연율은 감소했으며, 특히 청소년(18-24세)과 극빈층의 흡연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를 구입하지 않고 절약한 돈은 필수 가정용품을 구입하는데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죄악세로 확보한 세입은 필리핀 보건부 예산의 2배에 달했으며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건강보험 확대에 쓰이게 되어 4천 3백만 명 이상의 가난한 필리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필리핀 빈곤가구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문제 개입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담배유행병 억제와 세원 마련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더 큰 규모의 건강 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위험한 기생충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저희 재단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염병, 특히 극빈층에 영향을 미치는 병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 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소아마비, 말라리아, 에이즈(HIV/AIDS), 설사병, 폐렴, 결핵과 같이 빈곤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질병을 퇴치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소외열대질환(NTD)의 퇴치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그 동안 기부자들의 재정적 지원이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NTD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상 유례 없는 최대 규모의 의료 개입을 통해 NTD를 퇴치하고자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자원도 부족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도 매우 제한적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랄만한 진전이 있었는데 일명 ‘수면병’으로 알려진 ‘인간아프리카트리파노소마증(HAT)’의 사례입니다.

HAT는 체체파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기생충 감염입니다. 이 질병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사망 확률은 거의 100%에 이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수면병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자원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병은 생각보다 더 빨리 퇴치될 수 있습니다.

우간다의 사례를 통해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됐습니다. 2006년 우간다에서는 거의 300건에 이르는 수면병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 이 수치는 1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단 4건만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이츠 재단이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진단 기술, 임상 실험 중인 신약, 곤충 개체군을 줄이는 신제품도 개발돼 있습니다. 소아마비 퇴치 전략과 마찬가지로 최첨단의 원인규명 기술과 세밀한 계획도 투자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발병 사례가 가장 많지만 지원금 부족, 낮은 기술 활용도, 사안의 낮은 우선 순위 때문에 퇴치 노력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도 저희처럼 수면병의 완전한 근절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도 될까?”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답변은 물론 ‘확실히 가능하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 파트너들은 세계 보건과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각자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충구제부터 진료와 치료까지 HAT 퇴치 전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빈곤층을 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 부문이 감수하기 어렵거나 감수할 의지가 없는 재무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병 퇴치에는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낼 기회나 시장 내 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중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 부문 파트너들은 ‘옳은 일’이라는 간단한 이유로 수면병 퇴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력의 상당 부분을 생명공학기술 업계에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빈곤층의 문제 해결 분야에서 어떤 일까지 가능하게 할 지 매우 기대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과의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실패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할 때 그 잠재력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

## 미국 교육의 교훈

빌과 멜린다 이사장은 처음부터 게이츠 재단이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결과에 따라서 업무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좀 더 똑똑한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배웠던 분야 중 하나는 미국의 12학년제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기회로 연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의 동료인 앨런 골스톤 씨는 작년에 교육 전문가들과의 모임에서 이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풍족하고 보람찬 삶을 보장하는 교육 기회가 막혀있거나 불확실한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2015년도 ACT 진로 및 대학입학수학능력 연구에 따르면 영어, 읽기, 수학, 과학 4과목 중 3과목 이상에서 대학 진학에 적합한 학업성취도를 이룬 학생은 조사 대상 중 4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유색 인종 학생들의 성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위의 통계는 안 좋은 수학 문제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좋은 공립학교를 늘려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할 때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사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학업성취도 기준을 통해 연말마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기회로 이어지는 문이 열릴 것 입니다. 미국의 공통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 CCSS)은 이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는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한 일부 주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최초로 채택한 켄터키 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켄터키 주는 공통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교사·학교 운영진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 기준, 교사의 피드백과 지원, 장기적인 평가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켄터키 주에서는 4가지 ACT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에서 학업성취도 기준을 달성한 학생의 비중이 2011년 27% 에서 33%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기준 수치는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6%p의 증가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심층적이고 계획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격한 기준과 높은 기대치가 있더라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취를 도와줄 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재단은 미국의 공교육 기관이 공통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원과 지원의 수준을 과소 평가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공통교육과정의 효과가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이었지만 저희가 가슴에 새긴 것은 미국의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은 방대하고 복잡한 임무이며 게이츠 재단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힘들게 터득한 이후로 저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최고의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공통교육과정에 맞는 자료를 찾거나 만들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교사들이 교육과정 채택과 개설, 수업 개발, 보충 학습 자료 탐색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업무의 가장 좋은 부분은 교육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보다 가르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사들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계획에 도움을 주는 LearnZillion, Better Lesson, EngageNY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수단은 이제 수백만 명의 교사들에게 전통적인 교과서를 대신할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12 교육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고서인 EdReports.org와의 파트너십을 지원해 교사들이 직접 작성한 수업 자료 검토 내용과 사용 결과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전역의 교육자들이 교육과정에 적합하면서도 수준 높은 수업 자료를 탐색·개발·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교육 제도를 학습하는 저희의 여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파트너들, 특히 교육자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 모두의 믿음대로 미국 교육 제도가 다시 한번 형평성을 달성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 끝으로, 할리루 우스만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스만 씨는 나이지리아의 환경 보건 담당관으로 하수 샘플을 채취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만 씨를 만난 것은 카두나 주에서 ‘질병 감시’에 대해 배울 때였습니다. ‘질병 감시’는 소아마비 퇴치라는 목표 달성에 결정적이었던 기술 혁신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우스만 씨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생명을 구하고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일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

우스만 씨의 말은 옳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 한 달 후, 나이지리아는 소아마비가 발병하지 않은 한 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일년간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세계소아마비박멸이니셔티브 (GPEI)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덕분입니다. 게이츠 재단이 참여하기 훨씬 전부터 GPEI구성원들은 소아마비 퇴치에 앞장서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소아마비 박멸 분야에서 이룬 진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세계가 소아마비 퇴치의 최후 전선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게 되면서 저희는 다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제공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하면서 우스만 씨 같은 보건 분야 인력이자 영웅들을 동원해 수십 년 간 추구해 온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역사로 써내려 가시는 수많은 분들과 일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소아마비 퇴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앙을 제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독 빈곤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들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소아마비 없는 세상이라는 원대한 목표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비전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 비전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이끌어 왔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국제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